

제주도의회 초대 여성특위 위원장에 이선화 의원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선화 의원(한나라당·사진)이 선임됐다.



제주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선화 의원을, 간사에 김용범 의원(민주당)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선출 직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주여성의 역사인식과 제주여성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제주형 여성정책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제주지역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특위는 내년 6월 9일까지 제주 4·3사건과 제주해녀, 김만덕 등 제주여성의 역사인식과 제주여성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세계화시대의 제주형 여성정책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여성특위는 이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6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으며, 6월 10일 강경찬·김영심·김용범·방문추·손유원·신영근·이선화·장동훈·현정화 의원 등 모두 9명이 선임됐다.



저소득 노인 버팀목 ‘푸드마켓’

월 1448명 이용 전국 최고...나눔전달기관 자리매김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문을 연지 2년이 지나면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용자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에 비해 3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6월 17일 푸드마켓 개점 2주년을 맞아 발간한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푸드마켓 이용자가 3만4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이용인원은 1448명으로 2009년 이후 문을 연 다른 지역 푸드마켓 월 평균 이용인원 400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66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한 것.

올해 들어서도 1월 이용자가 1417명에서 3월 1487명, 5월 149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푸드마켓 전체 이용자가 1957명 중 70~80대 어르신이 78%(1520명)를 차지했으며, 여성(1522명)이 남성(435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23명(1.5%)에 불과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푸드마켓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서귀포 행복나눔푸드마켓이 문을 열 예정에 있어 서귀포시민의 푸드마켓 이용 불편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2년 동안 개인 246명, 기업체 및 단체 74개소를 통해 총 6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기

부반아 3만4750명에게 4억9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식재료(36%)로 나타났으며 ▲주식류(27%) ▲간식류(23%)가 뒤를 이었다. 부식류는 10%, 생필품은 4%를 차지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개점 2주년을 맞아 나눔전문 봉사단체인 ‘사랑나눔 서포터즈’를 이달 1일 창단, 앞으로 푸드마켓의 홍보사업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하는 봉사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마켓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눔전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 소외계층 60명 지원

제주도, 일제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찾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여 복지 소외계층 101명을 발굴, 이들 가운데 60명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일제 조사를 통해 발굴된 복지 소외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노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11명, 정신질환 의심자 7명, 아동 6명, 기타 45명이었다.

44명은 행정기관의 직권조사를 통해 발견됐고, 도민의 신고에 의해 발굴된 인원은 42명, 본인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15명이었다.

제주도는 60명 중 19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긴급복지 지원, 민간후원 연결, 일자리 지원 등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조사한 뒤 지원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일제 조사가 종료됐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요양보호사 취업률은
시설 탐방·제주평화양로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작은알프스’ 스위스가다 · 소식마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스타트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제1회 국제나눔컨퍼런스



풍인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신 외임직원 일동

제주시 연동 446번지 풍인빌딩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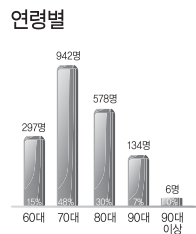
TEL : 064) 747-1610(대) FAX : 064) 747-1611

“미래의 터전을 닦고, 꽃고 세우는 건설사업 풍인건설(주)가 책임집니다.”

사랑나눔푸드마켓 2년 3만4750명 이용



〈등록회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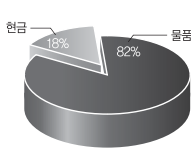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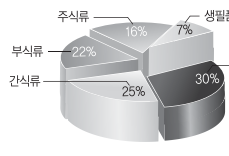


〈기부물품 품목비율〉

기부물품과 후원금 비율



기부물품 품종별 비율



〈이용회원 추이〉

월	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용회원	34,750	10,654	15,624	1,417	1,414	1,487	1,481	1,499	1,174

〈접수지원 총괄〉

구 분	2011. 5월 말 현재 (단위:천원)					잔 액	
	계	물 품	현 금	지 원	푸드뱅크 지원	물 품	현 금
계	625,133	513,715	111,418	481,797	56,918	21,361	65,057
2009년도	270,236	237,336	32,900	156,166	26,727	62,443	24,900
2010년도	262,458	202,665	59,793	226,963	26,274	△19,811	29,032
2011년도	92,439	73,714	18,725	98,668	3,917	△21,271	11,125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제주향교서 열려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이 제주시지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연)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공동주관으로 5월 22일 제주향교에서 열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후원으로 3년째 계속된 이날 전통혼례식에서는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신부 등 3쌍의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전통혼례식이 끝난 뒤에는 축하 프로그램으로 탈춤과 민요, 풍물놀이, 댄스 등 다



양한 볼거리도 제공됐다. 전통혼례는 국제결혼을 하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피-피자 데이’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6월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센터 서귀포사무소에서 남원읍 및 표선면 지역의 어려운 아동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해피-피자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인 ‘해피아이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 실시됐다.



빙떡 팔아내팔어린이돕기 성금

한울간병봉사회(회장 변명효)는 6월 4~5일 제주시 칠성통에서 열린 제6회 제주다민족문화제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한국관부스에서 한국전통의상인 혼례복과 한복, 제주의 상징인 갈옷을 무료로 대여해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등이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제주향토음식 빙떡을 만들어 팔아 판매금액 전부를 네팔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도내 요양보호사 취업률 21.9%

도 취업현황 조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5명중 1명 정도만 관련 시설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말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만2960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2844명(21.9%)이 각종 시설에 취업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서비스 19곳, 주·야간보호서비스 19곳, 단기보호서비스 1곳, 방문목욕서비스 14곳 등에 1913명(67.2%)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43곳과 노인공동생활가정 5곳에 840명(29.5%),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2곳에 7명(0.2%) 등이 취업했다.

취업이 안된 1만116명은 현

재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퇴직 후 재취업 준비, 가족부양 목적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격증 소지자의 90%는 여성이었다.

자격증 취득자는 2008년 4993명에서 2009년 4202명, 지난해 3286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올해에는 47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지난해 4월 25일까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습을 완료하면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6일부터는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가자격시험제가 도입됐다.



서부복지관 한경센터 개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경센터가 6월 22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마을회관 2층에 문을 열었다.

한경센터는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한경희망 네트워크(청소년 멘토링사업), 가족복지사업으로 다문화 어울림배움터 교육·문화사업으로 어린이장터와 어르신 평생학습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지역 여건상 인근 복지관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한경면 일대 중산간 농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읍면지역의 복지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봉사단 ‘초야’ 와 캐리월드 관람



해정원 아가외집(원장 고용성)은 6월 6일 청소년봉사단 초야(초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이들)와 함께 캐리월드를 관람하고, 질투휴양림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손가정 학생에 주 1회 플루트 레슨



성안복지재단 조손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차상)는 조손가정지원사업 일환으로 6월 11일부터 제주성안교회 마하나 임2실에서 플루트 레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음악과의 만남’ 프로그램은 조손가정 학생들이 악기를 통한 자존감 향상

과 정서적 안정에 목적을 두고있다.

조손가정지원센터 대상자 중 10명을 선정해 후원자 김순길(기독교대 제주분교장·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음악감독)씨가 매주 토요일 직접 플루트를 지도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60,000	76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1,050,000	1,050,000
복지사업후원	1,155,000	526,800
푸드마켓후원	1,870,000	4,427,0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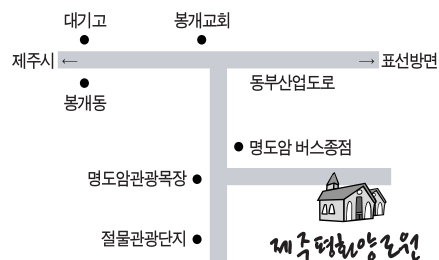
시설탐방

(44) 제주평화양로원



어르신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

여름 더위가 성큼 다가선 6월 하순,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평화양로원(원장 김재익·이하 양로원)**을 찾았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양로원에는 어르신 50명이 오순도순 생활하고 있다.



1998년 11월 20일 무료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문을 연 양로원은 대지 1만1944㎡, 건물 2493㎡(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물리치료실, 휴게실, 목욕탕, 생활실(1인실 20개, 2인실 15개) 등을 갖추고 있다.

최고령 할머니(107세)부터 직원까지 4대가 가족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살가운 정을 나누며 살다 보니 이곳에서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다. 방에는 냉장고와 TV, 전화기 등이 갖춰져 있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있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양호해 양로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올해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로빅'은 할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 한편 운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의식을 높이고 신체기능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실시되고 있다.

오경부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시간을 손꼽아



"어르신 진심으로대해"…3회 연속 우수시설

기다릴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또 게이트볼장을 갖춰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봉개·명도암 노인회와 친선 경기도 가질 계획이다.

1000여명의 텃밭에는 어르신들이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등 많은 종류의 야채를 직접 키워 빠듯한 양로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격월마다 열리는 생신잔치에는 화북동의 한 제과점에서 10년 넘게 케이크를 후원해 주고 있으며, 파티 후에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관광지를 관람한다. 오일장 방문 등 소규모 나들이도 자주해 어르신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기도 한다.

특히 양로원은 3년마다 실

시하는 노인시설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시설로 인정받았다. 2009년에는 최우수시설로 평가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시설을 견학했다.

김선희 사무국장은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으로 어르신을 옮길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이곳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실을 이용해 장례도 치러주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더 가족같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익 원장은 "직원들에게 청렴, 친절, 창의성을 강조한다"며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의=723-0909.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원

장애인을 둔 가정은 많지만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시 동부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문을 열었다.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이사장 강우일 주교)는 1월 1일 황사평에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를 개원해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했으며, 6월 1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애덕의집 장애인들의 길트기를 시작으로 현경훈 천주교제주교구 사목회장신부의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으며, 이어진 개원식에서

는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등의 축사를 했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가족기능재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가정의 경제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시설에 속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낮 동안 마땅히 보호받을 곳을 찾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소중한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서귀포시니어클럽(관장 박재천)과 함께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기념해 6월 14일 서귀포시 1호 공장 일대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사회적 관심확대를 위해 노인학대 피해 사진전, 실버스마일사업단 결의대회와 가두행진 등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지역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스마일사업단' 60명이 참석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노인학대예방과 홍보를 위한 사업단의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 두 기관은 실버스마일사업단과 함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예방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1 예비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6월 1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도내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기본적 실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회복지 정보 제공 및 이해의 폭을 증진하며, 예비사회복지사간 상호 친목도모 및 교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형범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내 예비사회복지사



들이 사회복지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해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작은 알프스’ 스위스로 기적의 여행

6월 16일부터 4일간 스위스 인터라켄축제 참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 이곳에 천사의 집(원장 김성숙) 천사들이 다녀왔다. 경비가 없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금호아시아나의 지원을 받아 꿈이 현실로, 기적같이 이뤄졌다.

2003년 맑고 경쾌한 요들과 인연을 맺어 다양한 활동으로 박수갈채를 받던 ‘작은 알프스’ 요들단이 인터라켄 축제 조직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펼쳐진 세계 요들 축제에 참여한 것이다. ‘작은 알프스’ 단원 12명과 인솔교사 2명이 함께 했다.

축제에 참가하기 전 스위스의 유명잡지 ‘Schweizerfamilie’에 기사가 실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지인들은 요들복을 입고 다니

는 모습을 귀여워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은 알프스’는 한복을 입고 요들을 부르며 한국을 알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아름다운 제주도를 홍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스위스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한서문화협회 초청으로 한국요들협회팀과 공연을 가졌으며, 스위스의 유명 음료회사인 히넨사의 초청공연에서는 앙코르가 쇄도했다. ‘즐거운 목동’을 독일어로 부를 때는 현지인들이 함께 합창하며 감동의 물결을 이뤘으며, 기자와의 인터뷰는 물론 활동사진이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김희자 전 교민회장이 축제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며 통역을 해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 천사들에게는 ‘신이 빛어



낸 알프스의 보석’, 융프라우 산을 구경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또 폐막식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단원 4명이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2km를 걷는 동안 ‘브라보’라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교진(대정고 2)군은 “이번 여행을 통해 요들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됐고,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겠다”며 “다음에도 꼭 이런 기회가 생겨 후배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희(대정초 6)양은 “많은 사람들

앞을 걸어가는 것이 떨렸지만 매우 자랑스럽고 재미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짧은 영어실력으로라도 외국 요들러들과 거침없이 대화하는 아이들이 대견했다는 이복희 사회복지사는 “하루에 10회 이상 공연을 해도 아이들은 즐거운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064-794-2227.

〈조순옥 명예기자〉



바리스타양성교육 진행

일배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는 여성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종의 전문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바리스타양성교육과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여성지적장애인들이 알기 쉽게 커피의 종류별 특징과 도구 사용법 등 이론과 커피공 볶기, 드립실습 등 실기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4개월의 바리스타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이동카페를 운영,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그동안의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소/식/마/당

마(馬)삼푸 만들기 체험 실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관장 김창아)는 6월 17일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천연 마(馬)삼푸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다습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 고은실)와 연계해 실시된 이번 사업은 여성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와 나들이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원장 임수경)는 6월 10일 제주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회장 강미선)의 후원을 받아 즐거운 나들이를 다녀왔다.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타며 거동이 불편해도 코끼리랜드와 써커스월드 등 여러 관광지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제주화력발전소 봉사단과 나들이



미타요양원은 6월 8일 남제주화력발전소 한마음봉사단과 함께 입소 어르신 16명을 모시고 나들이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표선민속촌과 제주조랑말타운 등 여러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제주를 부리는 마상쇼와 풍물놀이 등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빛지역아동센터 캐릭월드관람



한빛지역아동센터(시설장 주종훈)는 kt제주마케팅단 사랑의 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5월 28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30여명 등과 함께 캐릭월드를 관람했다.

캐릭월드를 처음 방문한 아이들은 상 상 우주블랙을 체험, 로봇 댄스, 모래로 연주하는 음악, 영화에서 보던 슈퍼 캐릭터 등을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서호요양원, 어르신 효도잔치 개최



서호요양원(원장 윤세찬)은 6월 18일 요양원 광장에서 강익주 대륜동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자 간담회 및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귀포시니어클럽 철심리악단과 대신중학교 나눔봉사단이 어우러져 축제의 한마당을 갖고 어르신들의 흥을 한껏 돋웠다.

제주시랑봉사단과 송악산 트래킹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6월 19일 지역자원봉사단체인 ‘제주시랑봉사단’의 후원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송악산을 트래킹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모두 심신이 불편해 외부와 접촉 기회가 적었으나 제주시랑봉사단의 후원으로 생활인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을 제공했다.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3일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1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간병인과정)’를 진행했다.



민주평통 영어대회 수상금기탁

제주외고 김진형 학생

제주의국어고등학교 김진형 학생은 6월 17일 ‘민주평화통일 전국통일 영어스피치대회’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해 받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또 김진형 학생은 새순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2년 동안 영어 기초 학습 지도를 하며 자신의 재능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 보금자리 선물해요”

대림산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년째 지원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가 7년째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림산업(주)(대표이사 김종인)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함께 2005년부터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며 희망의 등지를 선물하는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도 6월 8일 제주시 용담동 김모 할머니(73)의 집에서 이동한 회장과 이원민 대림산업(주) 제주외항공사 현장소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소속 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곰팡이 냄새나는 벽과 천장에 산뜻한 벽지를 새로 붙였다. 갈라지고 낡은 장판을 새 것으로 말끔하게 교체하는 등 할머니의 집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리했다.

봉사자들은 “힘은 조금 들지만 봉사에 나설 때마다 감사하



△이동한 회장(왼쪽에서 3번째)과 이원민 대림산업(주) 제주외항현장소장(오른쪽에서 3번째), 자원봉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다고 전하는 이웃들을 볼 때면 물질이 아닌 정이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해까지 대림산업으로부터 1억1600여만원을 지원받아 저소득가정 85가구의 집을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줬다. 올해에는 1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시공 및 수리, 지붕 및 천장 수리, 전기배선 교체, 부엌개량 등을 할 예정이다.

이원민 소장은 “제주외항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주지역에

기업이익의 환원을 목적으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한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V.S Family 사랑나눔 단합대회 개최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6월 11일 자원봉사단체, 가족봉사단, 개인 자원봉사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C.V.S Family 사랑나눔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단합대회에선 우수 자원봉사단체 8팀에 장애인요양원과 요양원 부모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레크리에이션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자원봉사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안주간보호센터, 최우수 재가장기요양기관

평안전문요양원 부설 평안주간보호센터(센터장 오은숙)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주야간보호센터 529곳을 대상으로 5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평안주간보호센터는 100점 만점에 100점(기관운영 27점, 환경 및 안전 14점, 권리 및 책임 17점, 급여제공 37점, 제공결과 5점)을 받았다.

오은숙 센터장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헌신, 정성으로 봉



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혼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과 후원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두가 이용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프로그램, 시설환경을 제공해 노년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체험행사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6월 13일 (사)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 제주선교회(회장 김성근)와 연계해 도내관광지를 관람하는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사)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 제주선교회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제주시 지역 개인택시 주일휴무조를 실시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 택시에 장애인들을 태워 도내 유명관광지인 다빈치박물관, 유리의 성, 더마파크 등을 방문했다.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



였지만 제주선교회 회원들과 시설 장애인들이 정을 나누며 함께 해서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너와 나, 통하는 관계코칭 진행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2011년 지역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너와 나, 통(通)하는 관계코칭 프로젝트 시즌Ⅲ’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과 지난해에 이어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는 아름다운 ‘性’, 자아발견을 통한 관계형성, 나와 다른 너의 ‘性’이야기, 성격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소중한 ‘性’ 바로알기, 청소년 권리증진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자아발견과 자존감 향상을 돕고 있으며,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시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주애덕의집, 화북 등에 체험홈 마련

제주애덕의집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남자체험홈 ‘애덕화북1호’(제주시 화북동 소재)와 여자체험홈 ‘애덕서사라2호’(제주시 삼도1동 소재·사진)를 마련했다.

각 체험홈에는 4명의 거주인과 지원교사 1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낮 시간에는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립생활과 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반상회, 성당 구역모임 참



석, 클린하우스 청소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애덕의집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해 체험홈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애덕의집은 2009년 10월 원내에 ‘훈련형 체험홈’ 운영을 시작했다.

‘내 몸이 달라졌어요’ 체성분검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이 한국임웨이(대표 박세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아동을 위한 건강 희망 프로젝트 ‘내 몸이 달라졌어요’에 참여하는 아동 40명은 6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를 방문해 in-body(체성분)검사를 받았다. 서귀포복지관은 참여아동들에게 in-body(체성분)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방법을 제공했다.

758@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6월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06kg ▲서문식품=두부 432모 ▲김치원=김치 75kg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90kg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생필품류 267개 ▲아산재단=쌀 200kg ▲산방미곡=쌀 400kg ▲존샘봉사회=고추장 30kg ▲고진숙=양파 1망 ▲김옥화=상추 10kg ▲CMS후원자=204명 170만원

칼럼

‘교복투’ 정부지원 중단해선 안 된다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공정한 사회’는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이며 공공정책 전반에 투영되고 있다. 교육·문화·보육·고용·복지 등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의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3개 유치원·초·중학교 운영

‘공정사회’ 정책 가운데 주목되는 정책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산층 붕괴에 따른 신빈곤층을 막고, 생계형 자영업의 폐업 속출,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 높은 청년실업률, 가정의 붕괴 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친서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양극화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 기

회를 잃게 하고 있다. 학교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의 교육격차마저 심화되고 있다. 상당수는 학습결손 학생으로 남겨나 지주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취약학생에게도 교육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영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약칭 교복투)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추진돼 6년째인 2011년 현재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 33개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하던 정부 특별교부금 예산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올해 제주 사업예산 20억 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던 9억 원이 끊긴 것이다. 정부는 사업시행 초기 예산지원으로 인해 안정화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가뜰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 20억 원(제주도 지원예산 2억 원 포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상급식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도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사업기간 또한 기존 5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단축돼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즉 올해 신규 선정 학교(6개교)나 재선정학교(6개교)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5년 사업으로 선정된 기존 21개 학교는 사업기간이 도래될 경우 예산확보에 따라 연장 또는 중단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건강한 성장이 우리 미래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사업이며 지역 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정서발달과 교육 성취를 높여주기 위한 중대한 사업을 지역 교육청 부담으로 모두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미래 한국사회의 건전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하나로 엮어지는 교육통합지원망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취약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론

청렴과 공직부패

요즘 나라 안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공직부패의 양태가 가관이다.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여 부패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할 판이다.

부패(腐敗)는 정신적으로 타락함을 뜻한다. 반면에 청렴(淸廉)은 마음이 고결(高潔)하고 재물욕심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고결하면 성품이 맑고, 성품이 맑으면 행실이 좋다. 부패하면 청렴할 수 없다. 하지만, 자아(自我)를 다스려 물욕에서 해탈(解脫)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찌면 원초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강한 직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면 결코 불가능은 없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국민보다 한층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직위를 이용해 재물을 탐하거나 부정부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직자, 올바른 가치관 확립해야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다. 재물의 탐욕에 기인하여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각종 공직범죄를 본다. 왜 그럴까. 모랄해저드의 중심에 있는 돈(貨幣)이란 무엇일까.

돈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재화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돈은 가치척도수단과 재화축적의 목적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체로 작용한다. 그러나 부정부패한 돈이 양화(良貨)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빈부의 격차에 따라 삶의 질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듯이, 행복의 척도는 돈이 아니고 내면의 사유(思惟)에 있기에 말이다.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단죄(斷罪)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아를 주체하지 못하고 탐욕에 타락해버린 그들의 인생사에 연민(憐愍)의 정을 느낀다. 그들은 무슨 낮으로 가족을 대하며, 어떻게 이 사회에서 생활할까. 공직범죄는 공직자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짓과 부정부패는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나는 법. 재물을 탐한 과오를 평생후회하며 심연에 허우적대는 그들의 처지가 안쓰럽다.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패한 공직자들은 가라.

공직자, 식자층, 사회지도층을 망라하고 각계각층에 고루 만연된 부정부패의 끝은 어디인가. 왜 부정부패와 공직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유물론적 황금만능주의 세태는 문화지체현상과 부패심리를 잉태하고 이는 곧 비리와 범죄로 이어진다.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빈곤한 철학과 타락한 가치관, 천민윤리가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공직자는 결연한 의지로 과감히 청탁의 사슬을 끊고, 금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윤리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청렴의 아름다운 보편적 가치가 뿌리내린 공직사회가 구현될 때만 사회정의가 확립되고, 나라가 바로서기 때문이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기고

푸드마켓과 함께하는 나눔의 미덕



임 문 범

사랑나눔푸드마켓운영위원장

최근들어 ‘나눔’이라는 말을 부쩍 많이 접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나누고 돕는 것을 미덕으로 살아왔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과 제주의 전통문화인 조낭과 수눔을 정신이야말로 그러한 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나눔의 미덕이 잘 나타난 사회복지서비스가 바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아

닐까 생각한다.

푸드마켓이란 푸드뱅크와 같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 현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기부받은 물품을 매장에 진열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무료로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는 푸드뱅크와 다른 점으로 푸드뱅크에서 한단계 진화한 형태의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17일 개점 2주년을 맞은 ‘사랑나눔푸드마켓’은 2년간 무려 3만 4천여명의 이용자들이 찾아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자랑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를 만류하나 그 이용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물품은 더욱 많아져야만 하는 부분은 푸드마켓 운영자들로서는 계속되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변변한 생산공장이나 기업체들

이 많지 않은 제주지역 여건상 충분할 만큼의 후원물품을 모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우리 가슴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수눔을 정신과 김만덕이 베풀었던 사랑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며 제주도민과 여러 기업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가속화 되어가고 그에 따라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이웃들이 ‘사랑나눔푸드마켓’에서 환한 웃음을 짓게 되길 기대한다.

제1회 국제나눔컨퍼런스

“연령 · 학력 · 소득 높을수록 기부참여율 높아”

보건복지부와 KBS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1회 국제나눔 컨퍼런스'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주제로 6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본지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컨퍼런스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와 KBS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1회 국제나눔 컨퍼런스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주제로 6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1인 평균 17만원 기부...4명 중 1명은 정기기부 부유층 기부노력 부족...나눔모형 개발 필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는 제1세션 '한국의 기부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기부금 총액은 2008년 기준으로 8조9100억원에 달한다"며 "종교기부를 포함한 개인기부는 5조53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기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3조37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기부금 규모는 0.8%로 미국의 2.2%에 비해 많이 떨어지며, 개인기부 비중 역시 미국의 95%에 비해 우리나라는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개인기부총량 비중은 0.54%로 미국의 1.67%에만 크게 뒤질 뿐 OECD국가들 가운데 중간정도 위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7만원 수준(2009년 기준)이며,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24.2%로 기부자 4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1.33명만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어 자선기부의 정기성이 활성화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개인 자선기부의 특징을 연령대 · 학력 ·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자선기부노력 측면에서는 소득수준 90%대 시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은 반면 소득수준 20%대에 있는 시민의 기부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의 비중이 대다수이며, 개인기부 중 상위 1%에서 상위 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 몫은 35%에서 50% 이상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재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기부와 관련해서는 2009년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에 참여한 223개 기업 중 과반수 정도의 기업만이 매출액 0.1% 수준, 그리고 경상이익의 1% 이상 수준에서 사회공헌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한국 500대 기업 중 상위 100개 정도의 기업에서만 사회적 기준에 상응하

는 수준에서의 기업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활동이 사회적 기준에 상응하지 못할 수 있는 나머지 400여개 기업들의 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밖의 기업들의 참여 제한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로 ▲부유층 나눔 모형의 개발과 촉진 ▲유산기부 확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기업의 직원 기부 제고를 위한 노력 ▲중소기업의 나눔 참여 촉진 ▲새로운 나눔 상품 및 나눔 방법의 개발과 활성화 ▲세금혜택 등과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 강화 ▲다양한 주체에 의한 나눔 활동 관련 통계의 지속적 생산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광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모금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손쉽게 소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체계 조성 ▲모금 · 배분 · 평가의 선순환 구조 정착 ▲평가 · 배분 · 모금의 모든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낮고, 같은 기부에도 기부처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기부공제의 폭 확대 등 기부에 우호적인 세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하고 감시하기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하다"며 "민간 독립감시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인정체계 확보 방안으로 ▲모금전문가 공인자

공제 폭 확대 등 기부 우호적 세제개선 필요 독립감시기구 설립 · 나눔기본법 제정 주장도

또 ▲고액기부자의 기부목적 보장을 위해 기부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의 상품 개발 ▲재벌 2 · 3세의 젊은 부호를 중심으로 '한국형 기부서약운동' 전개 ▲비영리단체의 적극적인 모금전략 ▲지도층의 기부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나눔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사회적 인정체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많은 모금기관을 정부 힘만으로 평

격제도 도입 ▲모금전문가협회 설립 ▲모금자원봉사자 인정보상체계 마련 ▲투명성 확보기관 포상 등을 꼽았다.

특히 박 교수는 "모금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는 개별법을 일일이 정비할 경우 수준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투명성 확보 원칙 및 이행 ▲독립감시기관 법인격 및 기능 ▲모금기관 평가의 무화 ▲모금전문가 자격제도 등을 규정한 (가칭)나눔기본법 제정을 역설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의회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어린
사랑의마음을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개장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업체 및 단체 후원자

국수마당
국제컨테이너
금강축산유통
금호타이어 제주영업소
금호타이어 제주판매서비스
기분좋은정육마트
김만덕기념사업회
김치원
남녕고2회 졸업생일동
농협중앙회 제주도청지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뉴월드마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광성당 빈첸시오
동부간재
라이온스클럽 354G지구
명도암관광휴양목장
본다클럽 한라회
비원

산방미곡
산정대 사회복지과동아리 한꿈레오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서문식품
세계평화의섬교회
손뜻모아봉사회
싱싱부식
약천사신도일동
영락교회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연드림
작은세상봉사단
정우식품
제주나누리 라이온스클럽
제주MBC
제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제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5기 동창회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제주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사)제주마쌈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직원
제주신협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은행 봉사단
제주은행 시청점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종합식품
제주특별자치도슈퍼마켓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국제라이온스클럽 354G지구
중앙유통
(주)청루수산

탐라상사
푸른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물판매장
풍인건설
한국감정원 제주지점
한국미사회 제주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연합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한라라이온스클럽
한라일보 독자위원회
한이름정육마트
해담은어린이집
햇살상사
E도시가스
KT 제주마케팅팀
KT&G 제주본부

개인 후원자

강경록	강재욱	고승희	김대영	김분희	김인숙	문기훈	송연심	양창인	이경림	임경희	정현숙	허경미
강경림	강제희	고영태	김덕훈	김상현	김재홍	문영섭	송영신	오경숙	이경언	임문범	정해진	허미화
강길호	강창인	고용범	김동수	김선자	김정덕	문익순	송임권	오만순	이경훈	임부훈	조길화	허연정
강맹자	강태훈	고용석	김동은	김선희	김정수	문재원	송재근	오승관	이동한	임애춘	조명숙	허은영
강명숙	강현영	고유신	김동철	김성건	김정심	박강란	송창선	오승의	이명구	임양자	조애록	현미화
강문정	강효정	고은영	김동한	김성대	김정호	박강엽	송호철	오승진	이미향	임이랑	조정희	현민철
강미경	강희은	고이석	김두만	김성부	김종완	박광숙	송화선	오애순	이상주	장규환	조현경	현성부
강수남	강희철	고익준	김명수	김소연	김지경	박성홍	신동호	오양선	이선희	장승남	지경찬	현성요
강순실	고경수	고정희	김명옥	김수정	김지훈	박은석	안성희	오은숙	이순실	장승련	천갑순	현영심
강승남	고경완	고춘매	김문옥	김양자	김진훈	박정우	양돈행	오창석	이시찬	장승운	최막동	현예수
강승향	고경윤	고치환	김미경	김연경	김창섭	박정희	양명희	원석철	이영진	장윤정	최호만	홍경선
강영복	고두성	고태원	김미자	김영미	김춘옥	박종일	양복실	원성훈	이예원	장은숙	한경미	홍나나
강옥자	고명희	고현수	김미정	김영성	김 현	박주희	양석훈	유봉순	이은숙	장화자	한 권	홍명숙
강원식	고 미	고혜아	김미향	김옥순	김현아	박천광	양순희	윤경숙	이정숙	전금숙	한미숙	홍성희
강유심	고미연	고호준	김보경	김용현	김효심	변지철	양애자	윤순덕	이정화	정금옥	한영희	홍원우
강윤자	고미현	김경필	김복철	김우남	김효주	부미선	양윤정	윤영아	이창도	정명호	한옥녀	홍원철
강은숙	고병기	김금순	김봉룡	김원삼	김희숙	부정옥	양은희	윤정숙	이태엽	정미숙	한윤향	
강재석	고성봉	김남근	김봉철	김은양	나명숙	손효익	양재윤	윤주형	이현정	정재욱	함복희	
강재영	고성운	김남길	김부자	김은진	문경림	송순열	양진희	윤지형	임경아	정지현	허 진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눔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